

강릉 지역 가뭄 극복을 위한 범정부 협업 체계 가동

- 가뭄 대응을 위한 ‘범정부 합동 가뭄TF 대책 회의’ 개최(8.12.)

□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강릉 지역 가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8월 12일(화) ‘범정부 합동 가뭄TF 대책 회의’를 긴급 개최*했다.

* (참석) 행정안전부, 환경부, 농림축산식품부, 기상청, 강원특별자치도, 강릉시

○ 올해 강릉시의 강수량은 평년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, 단기간 내 가뭄을 해소할 만큼 충분한 강수 전망도 없어 가뭄 대응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.

※ 강릉시 생활용수의 87%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25.4%(8.12. 기준)

□ 이날 회의에서는 대체용수 확보, 운반급수 및 제한급수를 비롯해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관별 대책과 협력 사항을 중점 점검했다.

○ 강릉시는 용수 감량(생활용수 10%, 농업용수 60%), 대체 용수공급(1.8만톤/일), 생수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. 또한,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에 따라 생활용수 공급을 단계적으로 추가 감량할 계획이다.

○ 행정안전부는 재해구호협회와 협력해 이번 주 내로 생수 2.9만 병을 공급한다. 앞서 7월에는 강릉시의 추가 용수 확보를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4억 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.

○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수 제한급수 및 대체용수 공급, 환경부는 생활용수 확보 및 생수 추가 지원, 강원특별자치도는 인근 지자체 협력을 통한 급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.

□ 행정안전부는 생수 나눔 운동, 물절약 캠페인 전개 등 관계기관 및 민간 단체와의 협업 체계를 유지하는 한편, 지속적으로 가뭄 극복을 위한 지원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

□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“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강릉 지역 가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자연재난실 기후재난관리과	책임자	과 장	김진희 (044-205-6360)
		담당자	사무관	김용환 (044-205-6366)

